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 정원문화도시 '발돋움'



순천만국가정원 재개장 370만명 방문...전국 벤치마킹 쇄도 아날로그 정원-AI·문화콘텐츠 접목 '스페이스 브릿지' 인기

순천시가 순천만국가정원의 아날로그 정원에 AI와 문화콘텐츠를 접목해 특별한 정원을 선보이며, 정원문화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14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만국가정원은 지난 4월1일 재개장 이후 현재까지 370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지난해 박람회에서는 천만명에 가까운 관람객을 유치하며 역대 가장 성공적인 국제행사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문화관광연구원의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 결과 지난해 국가정원은 입장객 수 778만명을 기록하며 에버랜드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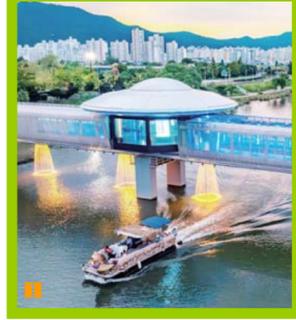
박람회의 성공 사례를 배우고자 전국의 기관·단체들이 앞다퉈 방문했으며,

현재까지 810여개의 기관·단체가 다녀갔다. 이는 전국 30여개 지자체에서 정원도시 조성을 선포하는 등 정원 조성 열풍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세종과 울산 등에서 정원박람회도 잇따라 개최될 예정이다.

'순천 따라 하기' 열풍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순천은 한발 앞서 문화콘텐츠를 결합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정원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을 연계하고 지역민·업체와 동반 성장하는 상생 시스템을 구축하며, 관람객을 도심으로 유도해 지역 경제 활력을 도모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변신한 국가정원은 아날로그 정원의 매력을 더욱 풍성하게 살



리면서도 문화콘텐츠와 첨단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즐거움을 더했다.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이라는 주제에 맞춰 다양한 AI와 캐릭터가 정원 곳곳에 배치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가정원의 랜드마크였던 '꿈의다리'의 전면적인 리뉴얼이다. 14만명 어린이들의 꿈이 담겨 있던 이 다리는 이제 '스페이스 브릿

지'로 탈바꿈해 우주인이 착륙한 다리'로 재탄생했다. 우주, 물, 원시의 순천만 습지라는 생명에너지로 미디어로 표현해 국가정원의 상징적인 공간이 됐다. '스페이스 허브'는 어린이들의 꿈을

우주로 실어 나르는 300m 길이의 대형 활주로로 조성됐다. 노을정원에 마련된 '두다하우스'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캐릭터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시크릿 어드벤처'는 4D 콘텐츠 체험관으로 리뉴얼되면서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만국가정원은 도시의 든든한 황금알과 같다"며 "문화콘텐츠 산업을 촘촘하게 연결해 도시 100년의 먹거리를 든든히 채워겠다"고 말했다. /순천=정기기자

1 순천만국가정원의 랜드마크였던 '꿈의다리'가 전면적인 리뉴얼을 거쳐 우주인이 착륙한 다리의 형상을 갖춘 '스페이스 브릿지'로 재탄생했다.
2 어린이들의 꿈을 우주로 실어 나르는 의미를 담아 350m 길이의 대형 활주로로 조성된 '스페이스 허브'.
3 장산마을에서 순천만습지로 이어지는 독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
4 순천만국가정원 야경. <순천시 제공>

구례 오산케이블카 설치사업 '속도'

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군 관리계획 결정 조건부 수용

구례군이 추진 중인 오산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기며 속도를 낼 전망이다.

14일 구례군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제도) 결정(변경)'이 조건부 수용으로 통과됐다.

이번 결정은 오산권역 관광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오산케이블카 설치사업이 큰 고비를 넘기고 한층 더 속도를 내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구례군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산과 섬진강 주변의 수려한 자연 경관을 관람할 수 있는 오산권역 관광 프로젝트를 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오산 케이블카 사업은 2022년 3월 대원플러스그룹과의 실시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구례군은 같은해 7월 군의회의 협약 동의를 받은 후 2022년 11월과 2023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지역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후 2023년 10월 전남도에 계획 결정을 신청하고 2024년 9월까지 전남도 관계기관(부서) 협의를 완료했다.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관광객 집중으로 인한 탐방로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람 동선 분산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구례군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된 조건을 반영한 조치 계획을 마련해

11월 중 전남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본격적인 착공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향후 실시계획 인가와 제도사업 허가 등 절차를 거쳐 2025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7년 상반기 중에는 구례군 최초의 케이블카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카가 운영되면 섬진강 일대 등 지역 대표의 관광 명소를 연결해 군 관광 자원을 극대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오산 케이블카는 군 관광 산업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관광객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필 기자

곡성 글로벌익사이팅 켈린지, 매력에 풍덩

와이어워킹로드·카약 체험 등 미션투어 상품 활성화 호응

곡성군이 국내·외 익사이팅 마니아들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자연 속 짜릿한 미션을 수행하는 '2024 글로벌익사이팅 곡성켈린지'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14일 곡성군에 따르면 이번 켈린지는 2023년 외국인 대상 팸투어를 통해 완성된 프로그램으로, 곡성 기차마을에서부터 섬진강을 따라 대항강(보성강)까지 이어지는 30km 구간에서 와이어워킹로드, 대항강 곳곳에 숨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카약, 곡성의 아름다운 풍광을 흠뻑 느낄 수 있는 패러글라이딩 등

다양한 익사이팅 미션을 수행하는 1박 2일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험가들을 위하여, 곡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유료 상품으로 판매했고,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짜임새 있는 액티비티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참여자들의 만족도 제고와 'K-익사이팅, 곡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이탈리아에서 온 로셀라 산토수오씨는 "K-컬처에 반해 한국에 와서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국의 로컬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참여했다"며

"깨끗한 자연 속에서 즐기는 카약 투어, 강 위를 걷는 듯한 어드벤처, 황금빛 들녘과 강이 보이는 하늘에서의 패러글라이딩은 정말 환상적이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곡성군 관계자는 "글로벌익사이팅 곡성켈린지를 세계적인 글로벌 미션투어 상품으로 활성화해 가겠다"며 "지속적인 프로그램 보완을 통해 체류형 관광 상품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1, 2차로 진행된 이번 글로벌익사이팅 곡성켈린지는 곡성의 아름다운 자연과 짜릿한 미션을 결합한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2025년도에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곡성=김영필 기자



2024 글로벌익사이팅 곡성켈린지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와이어워킹로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담양군, 내년 본예산 5천265억 편성

전년비 7.8% ↑ ...민생 안정·지역경제 활성화 중점

담양군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2025년 본예산 5천265억 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 5천1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5억 원(7.8%)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82억 원으로 6천만 원(0.8%)이 늘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388억 원, 세외수입 242억 원, 지방교부세 2천61억 원, 국도비 보조금 2천239억 원, 조정교부금 109억 원, 보전수입 176억 원으로 구성됐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1천251억 원(23.7%), 농업 1천95억 원(20.8%), 환경 7

92억 원(15.04%), 문화관광 320억 원(6.07%) 순으로 편성됐다.

주요 예산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금성면사무소 신축 10억 원, 으뜸마을 만들기 7억 원, 출생기초수당 3억 원 등이 포함됐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사업 23억 원, 급경사지 정비 11억 원,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 구축 1억 원이 배정됐다. 교육 분야는 담양장학회 출연금 17억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2억 원 등을 반영했다.

농업 분야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170억 원, 농어민 공익수당 49억 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57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33억 원 등이 포함됐다. 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20억 원, 장평전통시장 재건축 37억 원, 도시가스 공급 10억 원이 배정됐다.

김상진 기획예산실 예산팀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전략적 예산 운영을 통해 재정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 본예산안은 담양군의회 심의를 거쳐 12월17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담양=정승규 기자

여수 석유화학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사업 추진

160억 투입...노후 지하배관 안전진단·구조물 각종 모니터링 등

여수시는 14일 "여수국가산단 내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석유화학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노후 지하배관(488km) 최초 안전진단 실시 ▲사의 배관 관련 구조물 각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현행화 ▲시뮬레이션 기반 침수 화재·폭발사고 위험예측 모델 개발 등이다.

해당 사업에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

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 전남대학교, 고등기술연구원 등이 참여하며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국비 105



여수산단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여수시 제공>

억 원, 도비 169억 5천만 원, 시비 38억 5천만 원 등 총 160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여수산단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24시간 관제를 통한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시민과 근로자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수=김진선 기자

광양 '명품 전통주' 선풍적 인기 남도 주류 페스타서 판매 불티

광양시는 "최근 나주 빗가래 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린 '2024남도 주류 페스타'에서 광양시 전통주(사진) 판매 및 홍보 부스가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고 14일 알렸다.

"2024남도 주류 페스타는 전남과 나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전남도 관광재단이 주관한 행사다.

광양시 전통주 양조장인 '섬진강의 봄'이 내놓은 '섬진강 바람 오코'와 '섬진강 바람 백자'는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최근 주류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더한주류'의 매실 증류주 '서울의 밤'과 '백운주'의 명품 전통주 '백운복분자'는 '남도 술 다이닝 바' 및 경매 등 다양한 콘텐츠에 참가해 인기를 확신했다. /광양=양홍필 기자

공영민 고흥군수, 국비 확보 '광폭 행보'

국회 방문...역점사업 10건 재정 지원 건의

공영민 고흥군수가 1박2일 동안 국회를 방문하며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14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국회를 방문해 문금주·박홍근·이연희·안도걸 의원 등을 만나 주요 역점사업을 설명하고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건의한 역점사업으로는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5천622억 원) ▲국립 다도해 산림치유원(1천2억 원) ▲고흥만 간척지 활용 첨단 수산양식 배후단지 조성(400억 원) 등 총 10건이 포함돼 있다.

공 군수는 이들 사업이 지역발전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 예산 반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공영민 군수는 "고흥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안정적인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공영민(왼쪽) 고흥군수가 지난 13일 국회 확보를 위해 안도걸 의원과 면담 후 역점 사업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고흥군 제공>

"정부 예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고흥군은 국비 확보가 절실한 역점사업들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며,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지속 건의해왔다. /고흥=최봉환 기자